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 오늘 아침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 빨리 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다.
2. 자기가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맞춰야 된다.
3. 그때마다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 일이 밀려난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해야 할 일은 즉시 하는 생활에 길이 들어야 된다.
4. 하나님이 “빨리 해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니, <빨리 해야 될 일들>이 매일, 그때마다 닥쳐온다.
5. <그날의 일>은 그날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일이 밀리고 쌓이게 된다. 어제 못 한 일을 오늘 하려면 ‘시간’도 안 맞고, ‘때’도 안 맞아서 할 수 없게 된다. 고로 <그때마다 할 일>은 그때 즉시 해야 된다.
6. 가령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데, ‘1분 전에 자기에게 온 볼’이 2분 후에 또 오지 않는다. 온다고 해도, 지금은 ‘지금 상황에 해당되는 볼’이다. 그래서 그때 처한 일들을 그때 빨리 하라는 것이다.

7. 사람들을 보면, <빨리 해야 될 일>을 모르고 빨리 안 한다. 또한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빨리 안 한다. 빨리 하면, 큰 고통을 받을 것도 안 받고 피하게 된다. 빨리 하면, 문제가 해결 되기도 한다.
8.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를 잘 지켜서 그때마다 할 일을 한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때’를 지키며 산다.
9.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지켜 행해야 된다. 가령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시간만 지키며 가도 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서로의 시간을 맞추며 가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자기 때’를 중심해서 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야 된다.
10.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뒤바뀌어 행하지 않으면, 빨리 해도 ‘자기 일’을 빨리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다.
11.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빨리 해라.” 말씀하시고, 생활 속에서 빨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신다.
12. 저마다 생활 가운데 ‘삶의 수레바퀴’가 있다. 이 <삶의 수레바퀴>에 뛰어들어 착오 없이 살려면, 항상 ‘빨리 해야’ 된다. 천천히 해서는 ‘삶의 수레바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로 <잘

때>는 그때 꼭 자고, <일어날 때>는 그때 꼭 일어나고, <기도 할 때>는 그때 꼭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 꼭 들어야 된다. 안 하면, 못 한 채 지나간다.

13.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뛰려면, ‘신’ 이 되어 뛰어야 된다.

14.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고, <삶 속에서 저마다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사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몸이 되어 일체 되어 사니, 그 삶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 되는 것이다. 곧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이다.

15. 지금은 지구 창조 이후 ‘하나님의 최고 뜻’ 을 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펴고, <창조 목적>을 이루고, ‘최고의 말씀’ 을 계속해서 전해 주고 있다.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최고의 말씀을 듣고 있다. 최고 위치에서 살고 있다. 더 이상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하고 늘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나에게 “메시아가 땅에서 온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휴거>도 육신은 땅에서 이뤄지고, 영이 하늘로 간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의 부활이며 휴거다. 그리고 그 영들이 구원받고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갔다.” 하고 가르쳐 주셨다. 그때 기성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간다.” 하고 믿고 있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확인해 보면, 육신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이치에 안 맞는 말’임을 알 수 있고, 상식적으로 따져 봤을 때도 ‘이치에 안 맞는 말’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하나하나 확인하게 하시면서 ‘휴거’에 대해서도, ‘만물의 이치’와 ‘과학’과 ‘우주 세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셨다. 그때 내 영과 혼으로 보고 다니면서 ‘별’에 대한 것도 다 배웠다. 고로 ‘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말씀을 듣고 있다.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천 년을 살아도 못 산다.’ 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지구상 최고의 말씀’을 받았으니, 결국 ‘하나님 최고의 뜻, 창조 목적’을 이루고야 말았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께서서는 1m도 안 떨어지고 늘 내 옆에 계신다.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시면 그리 하시겠느냐. 아무리 부부일체라고 해도, 지구상에 1m도 안 떨어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성령님은 늘 내 옆에 계시면서 이야기하시고, 대화해 주시며 함께하신다. 고로 그 손을 성령께서 없으면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신앙의 병도 낫고,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셀 수 없이 일어난다. 또한 바닷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성경의 역사로 남긴다.<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나와 함께 한 역사>다.

17. <섭리사>가 민족적, 세계적으로 펴박을 받을 때도 선생은 오히려 콧방귀 뀌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한테 땅바닥으로 돌 던지네.’ 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라진다.” 하고 가만

히 됐다. 이제 영적 전쟁은 끝났다. 십자가를 저 주고, 조건을 다 세워줬으니, 심판받고 끝난 것이다.

18. 지난 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다. 선생이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십자가의 한을 내가 다 풀겠다고 했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전 세계가 다른 세계가 되어 살 텐데, 너무 원통하고 분통하다고 했다. 유대 종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무식하다고 하며 이 시대도 그러하다고 했다.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끝까지 견디고 해야 된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시대 보낸 자>는 ‘시대의 십자가’를 졌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같이 ‘심정의 십자가, 환난의 십자가’는 10일을 확대한 10개월을 중국에서 지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따르는 자들과 같이 10년 동안 지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저 주고, 조건을 다 세워주고 ‘부활의 때’를 맞았다. 결국 다 이루었다!

19. <영적 전쟁>이 다 끝나고 살았으니, 이제 멋지게 살아야 된다. 환난 때도 안 죽고 살았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자기 신앙이 약해서 죽으면 되겠느냐. 매일같이 말씀을 넣어주니, 정신 차리고 자기를 자꾸 만들며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

20. <이상세계>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이다. 그리함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황금성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된 삶을 사는 자’다. - 이 삶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보낸 자를 쓰고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섭리사>는 이제 1000년 동안 역사의 주인이 되어 펴 나간다.

◎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축원하며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